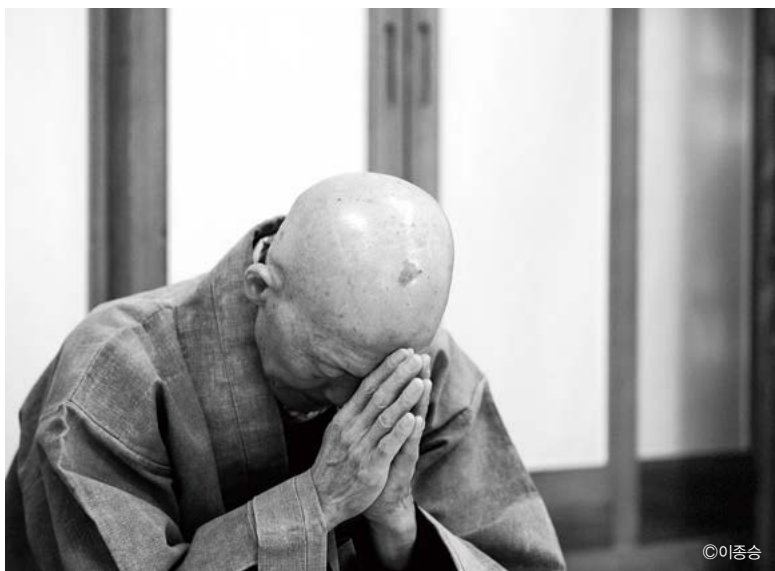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20. 7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이종승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말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0 / 7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맑고 투명한 시간(책과 음악)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우물을 쳐야겠네
일기일회	09	얼굴에 긴 속기를 털어 내라
맑고 투명한 시간	20	맑고 투명한 시간(책과 음악)
법정 스님의 숨결	33	무엇을 읽을 것인가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36	이면의 모습
법정 스님의 애송 선시	39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네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	40	책을 보낸다
법정 마음의 온도	42	책은 가려서 읽어야 한다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7월 1일 발행 / 통권 305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광래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우물을 쳐야겠네

글·법 정(法 頂)

그제 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 입하 무렵이라서인지 이따금 장대 비로 줄기차게 내린다. 고사리장마인가? 며칠 전부터 피어나기 시작한 모란이 후줄근히 비에 젖어 꽃잎을 다물고 있다. 별러서 모처럼 핀 꽃인데 비에 젖은 걸 보니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이번 비로 그새 가뭄이 풀리고 고사리 새순도 돋아나겠다. 산 너머 오미실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들 말로는, 고사리장마가 저야 헛고사리가 많이 올라올 텐데 날씨가 가물어 고사리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산길에서 마주치자 푸념이었다.

이 비가 개면 대숲 머리로 젖빛

안개가 피어오를 것이고, 쪽쪽쪽…… 머슴새가 초저녁과 새벽으로 울어댈 것이다. 머슴새는 벌써부터 밤을 울어예고 있다. 피꼬리와 빼꾸기, 그리고 밀화부리도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다.

철새들이 찾아와 귀에 익은 그목청으로 첫 곡조를 보내올 때, 반갑고 기특해서 내 가슴은 설렌다. 낮에 땀감을 들이다가 후박나무를 쳐다보았더니 새로 펼쳐진 잎 사이로 어느새 여기저기 꽃망울이 맺혀 있었다. 봄이 간 자리에 여름이 내리고 있다. 어김없이 펼쳐지는 계절의 변화.

이번 비로 상추와 쑥갓, 아욱이
 불쑥 자랐다. 씨앗은 벌써 한 달 전
 에 뿌렸는데 야지가 아닌 산중이라
 이따금 서리도 내리고 하여 아주 더
 디게 자란다. 가뭄 끝에 내린 비라
 떡잎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다. 아침
 에 보니 산토끼 한 마리가 채소밭에
 웅크리고 있다. 내 기침 소리에 놀
 라 달아났다.

호박도 두 구덩이 파서 상추보다
 일찍 씨앗을 묻었다. 떡잎이 올라
 온 걸 보고 씨웠던 비닐을 벗겨주었
 더니 부동자세로 전혀 자라지 않았
 다. 농사에 경험이 적어 비닐을 너무
 일찍 걷은 탓이다. 그러나 이번 비에
 새잎을 피우고 있다. 날이 들면 모종
 을 나누어 훑어버린 구덩이에도 옮겨
 심어야겠다.

숙경이한테서 시집간다는 편지를
 받고 뭘 해줄까 했는데, 마침 빈 부
 채가 한 자루 생겨 목월(木月)의 시집
 <산도화(山桃花)>에서 '밭을 갈아'를 써

두었다. 후렴으로 되풀이되는 '꾸룩
 꾸룩 비둘기야'는 번다해서 중간을
 빼버리고.

밭을 갈아 콩을 심고
 밭을 갈아 콩을 심고
 꾸룩꾸룩 비둘기야

백양 잘라 집을 지어
 초가 삼간 집을 지어

대를 심어 바람 막고
 대를 심어 통소 뚫고

장독 뒤에 더덕 심고
 장독 앞에 모란 심고

윗말 색시 모셔두고
 반달 색시 모셔두고

햇볕 나면 밭을 갈고
 달빛 나면 통소 불고
 꾸룩꾸룩 비둘기야

이런 정경이 물론 요즘 세상에는 꿈 같은 이야기지만, 가슴 한쪽에 그런 꿈이라도 지니고 살아야 사람은 덜 찌든다. 비록 어떤 아파트 단지의 몇 호집 아줌마로 산다 할지라도 흙에 이어진 그런 꿈을 지니고 살아 간다면 그들의 삶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 삶의 탄력마저 사라지니까.

꿈 같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삼국유사>를 읽을 때마다 나는 마치 전생의 황홀한 뜻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흥이다. 오늘처럼 닳아지고 찌든 현대인의 머리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설사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애뜻한 소망과 삶의 진실이 담겨 있다. 신화가 지닌 미적 감동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지 머리로써 꼬치꼬치 따지려고 들면 결코 이해

할 수 없다.

화가 이만의 씨가 엮은 <그림으로 보는 삼국유사>를 펼쳐보면서 요 며칠 동안 내 마음은 향기로운 꽃밭에서 노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단순해서 마음이 편안한 그림과 그 밑에 달고 있는 '작가의 말'에서 옛일에 대한 그리움이 한결 살뜰해진다.

<선덕여왕도善德女王圖>에서 작가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선덕여왕은 지혜롭고 아름답고 착한 분이었던 것 같다. 여왕의 지기삼사知機三事는 널리 알려진 일로 여왕의 총명함이 빛났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왕을 신라의 온 백성이 흠모 하였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귀志鬼라는 못난 사내가 여왕을 홀로 사모하다 상사병으로 미쳤다고 하자, 여왕은 지쳐 쓰러져 잠든 지귀의 품에 당신이 지니던 팔찌를 슬며시 얹어주었다고 한다. 이는 마치 자비로운 미소로 신라 천년을

보낸 미륵반가사유상이 턱을 괴었던 손을 살며시 풀어 슬픈 중생을 어루만져주려 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이런 여왕이 다스리던 땅의 공기는 얼마나 맑고 향기로웠을까. 후덕하고 인자한 덕의 향기로 인해, 요즘처럼 봄철 내내 눈물과 재채기와 콧물로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무고한 백성들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 시절에는 최루탄을 대량으로 생산, 경향 각지에서 쏘아떨어 그런 정치적인 불안도 없었을 테니까.

지나간 우리 왕조사를 훑어보면, 어진 통치자들이 있어 태평성세를 누린 적도 없지 않았지만, 때로는 연산군이나 광해군과 같은 포악한 군주들과 못된 간신배들에게 놀어난 무능하고 머저리 같은 군왕들이 있어 선량한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

《삼국유사》 권2에는 신라의 경덕왕과 충담 스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스님은 삼월 삼짇날 서라벌의 남산 삼화령(三花嶺)에 계시는 미륵불에게 차를 달여 공양하고 돌아오는 길에 왕과 마주친다. 백성을 다스려 편안케 할 노래를 지어달라는 왕의 청을 받고, 스님은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들려준다.

왕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미시라
백성을 어여쁜 아이로 여기시면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다
(중략)
아, 왕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리이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나 관료나 국민들 각자가 자신이 들어설 자리

인지 아닌지 자기 분수부터 알고 처신한다면 온갖 갈등과 불안이 해소되어 태평할 거라는 이야기다. 농민들은 농사에, 근로자는 산업에, 학생들은 학업에, 군인들은 오로지 국토 방위에만 전념할 때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표현은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사리의 정곡을 찌르고 있다.

〈안민가〉를 듣고 왕은 가상히 여겨 왕사(王師)로 봉하려 하지만 충담은 사

양하고 그 직위를 받지 않는다. 국정자문위원이 되는 것은 수행자답지 않은 처신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비가 개면 나는 우물부터 말끔히 치고 채소밭에 김을 매주어야겠다. 그것은 오로지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1985

•발행 : 「물소리 바람소리」



얼굴에 낀 속기를 털어 내라

글 • 법 정(法 頂)

얼마 전 제가 사는 오두막 방을 뜯어 고쳤습니다. 세상을 뜯어고칠 수 없기에, 제가 사는 주거 공간만이라도 뜯어고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방을 뜯어고쳤습니다. 방을 고친 지 오래됐고 또 서툴게 고쳐서 그동안 불이 잘 안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보다 아궁이로 나오는 연기가 더 많을 정도였고 방바닥에도 틈이 생겨 연기에 그을려서 귀신 사는 방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굴뚝과 아궁이의 위치를 정반대로 바꿨더니 불이 제대로 듭니다. 또 새로 도배를 했습니다.

가구는 아직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빈방에 방석 하나만 들여놓고, 책상과 책, 차도구도 일절 들여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빈방에서 방석 한 장만 깔고, 물론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거치적거릴 것 없는 텅 빈 공간이 좋아서 스무 날째 이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빈방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구를 들여놓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빈방인 채로 더 있고 싶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홀로 빈방에 남게 됩니다. 살 만큼 살다가 몸이 굳어지면 그곳이 관 속이든 무덤 속이든 빈 공간에 홀로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부장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미리부터 빈방에 홀로 있는 순수한 자기 존재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해 드립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다음에 홀로 있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여럿이 어울려 살더라도 결과적으로 홀로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안에 살더라도 홀로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으로써 이웃과의 관계가 새삼스럽게 보입니다. 늘 얽혀 있으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도 안 되고, 이웃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빈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텅 빈 데서 오는 충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할 집에서 가구를

들여놓지 않고, 도배한 빈방에 앉아 보십시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거치적거릴 게 없기 때문에 신경 쓸 데가 없습니다. 물론 늘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처음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군가가 겪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닥쳐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그것을 이겨 내기 위해 안으로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토인비가 지적한 것처럼 역사는 끝없는 도전 속에서 그에 대처하는 응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도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라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세월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변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 어려운 일도 없이 안락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고 사회고 생기를 잃고 타락해 갑니다. 우리 시대의 이와 같은 어려움은 우주에 우리에게 안겨 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버릴 것 안 버릴 것 가리지 않고 마구 버리면서 아깝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해서 OECD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로비를 해 가면서 가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경제가 OECD에 가입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신한국, 신

경제를 세계시장에 과시하기 위해 무리를 해 가면서 OECD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교활한 외국 자본이 마음 놓고 들어와 우리의 금융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킨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탐욕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채울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차지하고 채우고 앞서며 이기는 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졌던 것을 줄 수도 있어야 하고, 차지했던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며, 채웠던 것을 텅 비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뒤처지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삶

을 조화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이루어진 지구촌에서 100살도 못 사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늘 공허한 상태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탕진하고 허물고 소비합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경제뿐만은 아닙니다.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저 입만 벌리면 경제를 말하는데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전 생애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닥친 이와 같은 시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타고 가야 침몰하지 않습니다. 콩치잡이 그물에 걸려 침몰한 잠수정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아주 오랜만에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살상하는 잠수정이 콩치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했습니다. 콩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그런 무기들조차 전혀 예상치 않았던 콩치 그물에 걸려 침몰한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타지 못하면 그렇게 침몰하고 맙니다.

넘치는 물량에만 현혹되어서 우리는 그동안 절제의 미덕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절제를 했습니다. 넘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절제의 미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난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볼 때가 되었습니다. 주어진 가난이 아니라 선택해야 할 가난입니다. 그것은 빈곤이 아니라 아름다운 절제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선 부자로 살기보다 가

난하게 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가난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 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난 속에서도 도락(道樂)과 풍류(風流)를 잃지 않았습다. 때로는 가난을 풍류로까지 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옛 시에 보면 가난을 풍류로 승화시킨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선비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린 나머지 밤마다 향을 사르면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꺾으나 개나, 밤이면 늘 향을 사르면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신께서 그대의 기도에 감동하시고, 그 소원이 무엇인지 나더러 알

아 오라 하셨느니라.”

신이 보낸 사신이었습니다. 이때 그 선비가 대답합니다.

“제 소원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먹고 입는 것이나 부족하지 않고, 그저 산수 간에 유유자적하다가 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소박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자 허공 속에서 신이 보낸 사신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 그것은 하늘나라 신선이냐 즐기는 낙인데,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부귀를 구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 신선의 낙이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재미 있습니다. 대개 부귀를 바라는데, 이 선비는 그저 세 끼 밥이나 먹으며 산수 간에 유유자적하다가 일생

을 마치게 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옛 선비들의 조출하고 맑은 소망, 과욕하지 않고 자기 분수와 그릇만큼 받아들이려는 소박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생의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분들은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난을 멎으로까지 승화시키려 했습니다.

꼭 돈을 들여야만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움의 무한한 소재인 자연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달과 별과 구름이 있습니다. 나무와 꽃과 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가슴만 활짝 열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치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인의 창의력 부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되풀이와 모방, 그것은 창의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힘을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창의력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탐구하고 추구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 바탕이 이루어집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독서만 한 것이 없습니다. 책이란 무엇입니까? 남들이 오랫동안 겪으면서 축적해 온 지혜를 우리가 손쉽게 책을 통해서 자기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낱알이 이 도시 저 항구로, 혹은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남들이 일찍이 겪으면서 축적해 온 그런 지혜를 책을 통해 자기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을 키우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이 바로 책 읽기입니다.

세상은 온통 경제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안으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송나라 때 이름을 날리던 시인이며 서예가인 황산곡(黃酸谷)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대부가 사흘 동안 책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언어가 무의미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 모습이 추해진다.”

사대부는 지식인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의 글과 그림을 대하면 얼굴에 낀 속기(俗氣)를 털어 낼 수 있다.”

흔히 책에서 오는 기운을 ‘서권기(書卷氣)’라 하지 않습니까? 독서에서 얻어지는 기개와 기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글과 그림에 서권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그림과 글씨를 날마다 감상함으로써 그것을 창조했던 그 인격이 옮겨와서 나 자신의 서권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독서하던 태도를 이 자리에서 함께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홍길동의 저자로 알려진 허균 선생은 독서량이 굉장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문헌을 이것저것 들춰보고 있는데 <한정록(閑情錄)>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독서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독서에는 독서하기 좋을 때가 있다. 위나라의 동우(董遇)라는 사람은 삼여의 설(讀書三餘)을 들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 있음직한 이야기입니다.

“밤은 낮의 여분이고, 비 오는 날은 맑은 날의 여분이며, 겨울은 한해의 여분이다. 이 여분의 시간에 일념으로 집중하여 책을 읽을 수 있다.”

물론 독서의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경 사회에서는 밤과 비오는 날에는 들에 나가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책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겨울철에는 일을 다 해 놓고 차분히 집에 앉아 독서에 몰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삼여의 시간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책을 읽는 세 가지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 밤에 고요히 앉아 등불을 밝히고 차를 달이면 온 세상은 죽은 듯 고요하고 이따금 멀리서 종소리 들린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정경 속에서 책을 펴 들고 피로를 잇는다. 이것이 첫째 즐거움이다.”

밤새워 독서를 했기 때문에 새벽 세 시에 절의 범종 치는 소리가 들려왔는가 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정경 속에서 책을 펼쳐 들고 일상생활에서 묻은 피로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길을 막으면 문을 닫고 방을 깨끗이 청소한다. 사람의 출입은 끊어지고 서책은 앞에 가득히 쌓여 있다. 아무 책이나 내키는 대로 뽑아 든다. 시냇물 소리 졸졸 들려오고 처마 밑 고드름에 비루를 씻는다. 이처럼 그윽한 고요가 두 번째 즐거움이다.”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읽을 때의 그 분위기, 독서의 풍류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잉크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붓으로 메모도 하고 그랬던가 봅니다.

“낙엽이 진 숲에 한 해는 저물고 싸락눈이 내리거나 눈이 깊이 쌓였다. 마른 나뭇가지를 바람이 흔들며 지나가면 겨울새는 들녘에서 우짖는다. 방 안에 난로를 끼고 앉아 있으면 차 향기 또한 그윽하다. 이럴 때 시집을 펼쳐 들면 정다운 친구를 대하는 것 같다. 이런 정경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허균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옛사람들은 독서를 하면서, 오늘의 우리처럼 책장만 훌훌 넘기며 내용만 빼내는 것이 아니라 독서하는 분위기, 자연과의 교감, 다시 말해 독서를 통해서 아직 활자화되지 않은 여백까지도 읽어 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풍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인격이 제대로 닦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독서의 분위기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책 밖에 들어 있는 그 소식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책은 안 읽었지만, 산골에 살면서 책이 있기 때문에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지만 좋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승이 곁에 있고, 내 친구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도 책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책이란

그런 것입니다. 전혀 낯선 사람도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의 어떤 작가와 작품을 대하면 오늘 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책이란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제 산중 생활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도 책을 읽는 재미에 있습니다. 물론 독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이것저것 받도 가꾸고 일을 하다가 저녁에 등불을 켜 놓고 몇 장이라도 읽고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새 책을 읽을 때는 새 친구를 얻는 것 같고, 이미 읽은 책을 다시 볼 때는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같은 책도 읽는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감흥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선생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글을 유배지의 현장인

강진 굴동의 다산초당에 가서 읽어 보십시오. 집에서 읽는 것과 그 감흥이 전혀 다릅니다. 다산이 200년 전 유배되어 유배 현장에서 썼던 글을 다산초당의 마루에 앉아서 읽을 때 그 감흥이 남다릅니다.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선생의 〈어부사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보길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읽어 보십시오. 아파트 몇 동 몇 호에서 읽는 것과는 그 감흥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여행할 때에는 필요한 책을 몇 권 가지고 떠납니다. 인도 불교 유적지를 순례할 때도 책을 몇 권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 절터만 남은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이 설법했던 〈숫타니파타〉라는 초기 경전을 읽으니까 마치 부처님의 육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느낄 수 없었던, 머리로만 받아들였던 그런 법

문이 그 현장에 가서 들으니까 전류를 느끼게 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도시에서 읽을 때는 감흥이 별로였는데 산골 오두막의 겨울 난롯가에서 읽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물론 저도 보스턴에 갔을 때 월든이라는 그 작은 호숫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현장을 목격하면 책에서 읽었던 감흥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자와의 교감을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책은 베스트셀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스트셀러는 한 때입니다. 말하자면 베스트셀러가 모두 좋은 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책은 세월이 결정합니다. 오늘날 고전으로 남아있는 책들은 모두 세월이 결정해 준 것입니다. 세월의 체에 걸려져서 남은 책들이 바로 양

서입니다. 그런 책은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합니다.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사실 한 번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진정한 독서인은 양서良書와 비양서非良書를 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양서와 비양서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독서인입니다.

또 책을 읽을 때는 느긋하게 읽어야지 조급하게 건성으로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읽으면 읽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게 됩니다. 음미하듯 읽어야 합니다.

16세기 조선조에 지리산에서 살았던 청매青梅 선사의 글 중에 ‘십무익송十無益頌’이 있습니다. ‘열 가지 무익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불반조 간경무익心不返照 看經無益,

책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비춰보지 않으면 그런 독서는 무익하다.”

책에 읽히지 말고 책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벌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활자로 나타나지 않은 여백까지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기멸 곳이 없어서 갈팡질팡 헤맬 때일수록, 인간의 지혜가 담긴 책 속에서 삶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밖의 물결이 거세니까 안으로 탐구하는 길을 스스로 모색해야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살아 있는 기쁨을 누리야 합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느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삶의 충만입니다.

- 1998년 6월 27일 교보문고
초청 특별강연

•발췌 :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맑고 투명한 시간(책과 음악)

글·법 정(法 頂)

우리가 책을 대할 때는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자신을 읽는 일로 이어져야 하고, 잠든 영혼을 일깨워 보다 값있는 삶으로 눈을 떠야 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펼쳐 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항상 환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책까지도 읽을 수 있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책 속에서 그 길을 찾으라.

*

책은 그 읽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감흥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뒷보다도 중요하다. 소로우는 그의 〈월든〉에서 말한다.

“자장가를 듣듯이 심심풀이로 하는 독서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잠재우는 독서이며 따라서 참다운 독서라고 할 수 없다. 발돋움하고 서듯이 하는 독서, 우리가 가장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는 시간들을 바치는 독서만이 진정한 독서다.”

*

전기도 나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 자 뭘 하지? 그렇다. 소설이나 읽자. 이런 날은 소설이나 읽어야지 엄숙한 일은 격에도 맞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다. 다락에 올라가 더듬더듬 손에 잡히는 책을 뽑아드니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희랍인 조르바〉였다.

마침 잘되었다. 굵직굵직한 카잔차키스의 선繚을 나는 좋아한다. 예전에 읽은 책이지만 오늘 기연이다 싶어 다시 펼치기로 했다. 창가에 등의자를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읽자. 소설을 누가 뺏뺏이 앉아서 읽는단 말인가.

*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 우리가 지금껏 그토록 많은 종이를 씹어 삼키면서 얻어낸 게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본질과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종이벌레에 그치고 만다.

*

그리 많지도 않은 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책에 길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꾸만 쌓이는 부피를 치다꺼리하다 보면 정말 짐스럽게 느껴진다. 지난 가을 방을 수리하는 김에 5백여 권이나 되는 책을 친구들의 서가로 흩어 버린 까닭도 그 부피 때문이었다. 근래 책이 탐탁지 않게 느껴지는 둘째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더러는 시시콜콜한 소음으로 들려 내 안에서 우러나오려는 생생한 목소리와 맑은 사유의 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다.

*

얼마 전 <조주선사어록>을 읽으면서 새삼스레, 책이란 정말 가려서 읽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식의 서화가 아닌 지혜의 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욱 절실해진다. 추상적인 지식은 우리를 피로하게 하지만, 투철한 체험을 통해서 발음된 말들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조주록>은 책장마다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다. 활자 밖의 소식을, 출세간적인 안목을 띄워 주고 있다.

*

독일의 사상가 마르틴 부버가 엮은 <하씨딤의 가르침에 따른 인간의 길>을 읽었다. 문고판으로 50페이지밖에 안 되는 부피지만 그 내용은 실로 거대하다. 좋은 책이란 이런 책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간결한 표현이지만 깊은 사색을 안겨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런 책은 지식에 의해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떤 영감에 의해 받아 써진 기록일 것이다.

*

<법구경>은 간단한 말 속에 불교의 진수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시선집이다. 어느 한때에 쓰인 작품이 아니고 초기 불교 교단에서 여러 형태로 전해진 시를 모아 엮은 것이다. 모두 423편의 시가 26장으로 분류된 이 <법구경>은, 그 내용이 아주 실제적이어서 우리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불교의 윤리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심자의 입문서로는 적격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널리 애송된 시경詩經이다.

그 형식은 지극히 단순해 대부분 4행시로 되어 있고, 편집 시기도 기원전 2, 3세기로 어떤 경전보다 빠르다.

*

칼릴 지브란은 그의 〈예언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한다. “길가나 저자에서 벗을 만나거든 너희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그의 귓속의 귀에 말하라.”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장님이 눈뜬 사람을 꾸짖는 이 혼돈의 장바닥에서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그 ‘목소리 속의 목소리’이다. 그러한 목소리는 들을수록 새롭고 그때마다 귓속의 귀가 열린다. 시들어가는 우리들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시원한 감로수가 되어 영혼의 갈증을 달래 준다.

그와 같은 목소리가 우리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상황 아래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다. 그 자체가 하나의 구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속엿말을 할 수 있는 친구란 그리 많지 않듯이, 그런 목소리를 담은 책 또한 흔하지 않다.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같은 책은 단순히 종이나 활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혼 혼한 우주의 입김 같은 것에 의해 말해졌을 것이다.

*

범속한 표현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말하라면 서슴지 않고 좋은 책을 읽었던 그 순간들을 들겠다. 햇볕이 밝게 비쳐 드는 창 아래 앉아 맑은 정신으로 좋은 책을 읽고 있을 때, 내 삶은 그 대로가 잔잔한 기쁨이 된다.

이번 겨울철에도 오후에는 서쪽 창으로 햇볕이 밝게 드는 다실^{茶室}에 앉아 옛 선사들의 어록과 몇 권의 좋은 책을 읽었다. 이런 때 수류화개실^{水流花開室}이라는 다실의 이름처럼 내 안에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난다.

*

좋은 책을 대하는 것은 마음에 맞는 친구와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나직한 목소리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좋은 책은 우리에게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 소재를 가지고 사색함으로써 보다 푸르고 넓은 자기 세계를 형성해갈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 가까운 친구를 생각하듯이, 좋은 책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이웃을 생각한다. 우리 불일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언제부터인지 버릇처럼 몇 권의 책으로써 ‘숙제’를 내주고 있다. 서로가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삶의 의미를 나누면 우리는 같은 생각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다.

사람에게 탐구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속물이 되고 만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그저 그런 날의 연속이라면 삶 자체가 시들해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의 의미와 그 고마움을 놓치고 만다. 탐구하는 노력을 통해서 삶의 질을 얼마든지 높여갈 수 있고, 그때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시인의 관조(觀照)가 독자적인 리듬을 통해 우리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 리듬은 물론 정제된 언어의 구성으로 올려온다. 그리고 그 낱말의 언어는 시인에 의해 선택되고 창조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국어의 아름다움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연설문에 서가 아니라 시인들에 의해 빛을 발한다. 눈이 있는 자 그림을 보고, 귀가 열린 자 음악을 들을 수 있듯이, 말과 글을 알고 감성이 투명한 사람이면 누구나 시의 세계에 닿을 수 있다. 우리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듯이 시를 읽는 것도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

하루는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설을 한 권 사왔었다. 호손의 <주홍 글씨>라고 기억된다. 9시 넘어 취침 시간에 지대방(고방)에 들어가 호롱불을 켜놓고 책장을 펼쳤다. 출가한 후 불경 이외의 책이라고는 전혀 접할 기회가 없던 참이라 그때의 그 책은 생생하게 흡수되었다. 한참을 정신없이 읽고 있는데 방문이 열렸다. 선사는 읽고 있던 책을 보시더니 단박 태워버리라는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출가가 안 된다고 했다. 세속에 미련이 없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

그 길로 부엌에 나가 태워버렸다. 최초의 분서(焚書)였다. 그때는 죄스럽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었지만, 며칠 뒤에야 책의 한계 같은 걸 터득할 수 있었다. 사실 책이란 한낱 지식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 거기에서 얻는 것은 하나의 분별(分別)이다. 그 분별이 무분별의 지혜로 심화되려면 자기 응시의 여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전까지 나는 집에 두고 나온 책 때문에 꽤 옆치락뒤치락거렸는데, 이 분서를 통해 그러한 번뇌도 함께 타버리고 말았다. 더구나 뜻내기 사문에게는 온갖 분별 망상을 조장하는 그런 책이 정진에 방해될 것은 물론이다. 만약 그때 분서의 건^件이 없었더라면 책에 짓눌려 살았을지도 모른다.

*

나의 과외 독서는 누워서 부담 없이 읽히는 동화책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앞뒤가 특 트이는 그런 동화책이다. 그것은 내 나날의 생활에서 시들지 않은 싱싱한 초원이다. 넘치는 우물이다.

*

내 가난한 서가에는 몇 권의 동화책이 꽃혀 있다. 경전이나 그 주석서에 못지않게 자주 펼쳐보는 것들이다.

〈어린 왕자〉, 〈꽃씨와 태양〉, 〈구멍가갯집 세 남매〉 등. 그중에서도 생 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손때가 배도록 자주 펼쳐본다.

이 〈어린 왕자〉한테서는 바흐의 화음^{和音}이 난다. 읽고 나면 숙연해진다. 그 어떤 종교서적에 못지않게 나를 흔들어놓는다.

*

우리 다래헌의 추석은 동화책으로 지낸다. 출가 사문^{出家沙門}에게는 명절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마른 바람소리가 들려오면 불쑥 책가게를 찾아간다. 예쁜 장정과 잉크 내음이 싱싱한 동화책을 한아름 안고 돌아올 때는 날개

라도 돌칠 듯 마냥 부풀어 오른다.

세상에서 치면 대목장 같은 것을 보아온 셈이다. 머리맡에 쌓아두고 잡히는 대로 뒤굴면서 읽는다. 꿈이 담긴 동화책은 누워서 읽어야지 앉아서 읽으면 환상의 날개가 접히고 만다.

이렇게 한동안 읽고 나면 메마른 나의 가지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 같다. 흐려진 눈망울이 맑아지고 갈라진 목소리가 트이는 것 같다. 그리고 남을 서운하게 하지 않고 착하디착한 일만 하고 싶다. 이웃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

*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못박아놓고들 있지만 사실 가을은 독서하기에 가장 부적당한 계절일 것 같다. 날씨가 너무 청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엮어가는 수목의 그림자가 우리들을 먼 나그네길로 자꾸만 불러내기 때문이다. 푸르디 푸른 하늘 아래서 책장이나 뒤적이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리타분하다. 그것은 가을 날씨에 대한 실례다.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습다. 아무 때고 읽으면 그때가 곧 독서의 계절이지. 여름엔 무더워서 바깥일을 할 수 없으니 책이나 읽는 것이다. 가벼운 속옷 바람으로 돛자리를 내다 깔고 죽침竹枕이라도 있으면 제격일 것이다. 수고롭게 찾아 나설 것도 없이 출렁거리는 바다와 계곡이 흐르는 산을 내 곁으로 초대한다.

*

돈이나 시간이 없어 혹은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피서를 떠나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사 그런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과 바다를 찾아 나설 게 아니라, 그 산과 바다를 내 곁으로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훽훽 벗어 제치고 집안 청소라도 해보십시오. 그런 공간이 있는 처지라면 화단이나 채마밭에 맨발로 뛰어들어 잡초라도 매보십시오.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더위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 끝에 찬물로 목욕을 하고 마른 속옷을 갈아입고 돗자리 위에서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심신이 활가분해될 것입니다.

이때는 새로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에 읽지 않았던 몇 권의 책을 머리맡에 꺼내두고 속옷 바람으로 누워서 땀을 흘리며 읽어보십시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터득하고 있고 문명인이면서도 글을 읽지 않으면 머릿속은 묵은 발처럼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머리가 빈 야만인이나 속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의식은 투명할수록 삶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이 여름에 심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몇 권의 책을 읽으십시오.

*

과다한 지식과 정보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좁스름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의 빛인 지혜는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지식이 지혜로 심화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인간형성의 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식이 낱말의 연결 구조인 언어의 세계라면 지혜는 심연과 같은 침묵의 세계다. 침묵이 받쳐

주지 않는 언어에는 영혼의 메아리가 없다.

이제는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가려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열린 것 같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책을 대할 때도 그렇다. 좋은 친구란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시간이 넉넉하고 충만하다. 좋은 책도 마찬가지다. 시간과 공간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나에게는 좋은 책을 읽는 시간이 곧 휴식 시간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하며 차를 마시는 그런 경우와 같다. 책은 탐구하는 일에는 부적합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탐구는 땀 흘려 일하는 데서 비롯된다. 순수하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 일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될 때 지혜의 문이 열린다.

*

바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서 장엄한 낙조落照 같은 걸 느낄 것이다. 단조로운 듯한 반복 속에 심화深化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상이 심화 없는 범속한 되풀이만이라면 두 자리 반으로 죽한 '듣기 좋은 노래'가 되고 말 것이다.

일상이 지겨운 사람들은 때로는 종점에서 자신의 생을 조명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반복의 심화를 위해서.

*

오늘 아침은 날씨가 화창하여 덧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방청소를 한바탕 했다. 마침 라디오에서는 비발디의 〈봄〉이 흘러나왔다. 맑고 투명한 선율

에는 비발디 나름의 은밀한 슬픔이 배어 있는 것 같다.

이 '봄'의 소리를 들었음인지 숲에서 새들이 몇 마리 날아와 태산목 가지에서 뭐라 재잘거렸다. 같은 짓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모양이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이므로, 모두 이 우주가 벌이는 생명의 잔치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서 차를 한잔 마실까 하다가 그만두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들었다. 요요마의 연주. 봄밤에 첼로 소리를 듣고 있으니 내 마음 한구석에 연듯빛 밀물이 고이려고 한다. 음악은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호흡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 호흡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들 자신도 맑고 투명해진다. 작은 우주의 호흡이 된다.

*

파블로 카살스의 연주로 바흐의 첼로 조곡을 요즘 즐겨 듣는다. 한때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를 되풀이해 들은 적도 있다. 이따금 불일에 가면 게리 카의 콘트라바스에 영혼의 샤워를 한다. 하몬 루이스의 파이프 오르간이 배음으로 깔린 이 콘트라바스 소리에 기대고 있으면 먼 길의 피로도 말끔히 가시고 맑은 바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다도해의 한 섬에서 염전 일을 거들며 사는 영미가 보내준 음악인데 기묘한 소리이다.

그런데 이런 음악에 기대어 한참 속뜰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음악이 푹 중단되면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한다. 아, 건전지가 다된 것이다. 이때의 허망함 또한 개울물이 붙어 건너지 못한 채 돌아서야 하는 그런 심경과 비슷하다. 건전지 소모가 너무 심해서 충전해서 쓰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이게 예고도 없이 푹 멈추어버리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도 그

심지가 다하면 어느 날엔가는 이렇게 푹 멈추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마다 든다.

개울물 소리에 실려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다. 흐르는 물소리는 늘 들어도 싫지 않다. 자연의 소리와 빛 가운데 평안이 있다. 투명한 영혼이 깃들여 있다.

*

지난 설달 그믐날은 마음먹고 건전지를 사다가 오랜만에 음악을 싣것 들었다. 불교방송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정목 스님이 내게 선물한 음악인데, 그날 오두막 둘레에는 눈이 끝없이 내리고 뒷골에서는 노루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로에 장작을 한 아름 지펴 놓고 베니아미노 질리의 노래로 <시칠리아 마부의 탄식>과 <마레기아>를 되풀이 되풀이해서 들었다. 내 가슴에 구멍이 뺨 뚫리도록, 질리의 털 채워진 듯한 그 목청이, 붓글씨로 치면 갈필 맛이 나는 그런 소리가, 저 늦가을 들녘을 스쳐가는 마른 바람결 같은 그의 구슬픈 음색이 가슴에 와 닿았다. 메말라 가던 내 가슴에 물기가 촉촉이 배어들었다.

*

어제는 불일이 있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에 듣던 음악을 다시 들으니 새로운 감흥이 일었다.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음악인 <분수의 소네트>이다. 이 한 곡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들었다.

혼자서 장거리 운전을 하면 무료하고 따분해서 졸음이 올 때가 있다.

큰 소리로 염불을 하거나 독경을 하면 정신이 맑아져 졸음이 가신다. 그 대신 목이 마르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음악을 듣는다.

뉴욕에서 한 친구가 구해준 음반인데 세 번째에 실린 이 곡이 좋아서 이 음악만을 되풀이해 들으면서 먼 길을 달려왔다. 이런 음악으로 샤워를 하고 있으면 가슴이 투명해지고 김영랑 시인의 표현처럼,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른다. 사라져가는 것들은 아름답다. 다시 볼 수 없는 모습들이기에 또한 애처롭고 슬프다. 봄날이 내 가슴에 물기를 돌게 한다.

*

아침 식탁에서 바흐의 판타지와 푸가를 들었다. 며칠 전 취리히에 들렀을 때였다. 그곳 성모성당에 샤갈의 마지막 작품이 스테인드글라스로 남아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성당 한쪽에서 때마침 파이프 오르간을 조율 하던 참이었다. 조율이 끝나고 조율사는 음악을 한 곡 들려주었다. 성당에서 듣는 파이프 오르간의 그 장엄한 소리는 내 속에 낀 먼지를 말끔히 씻어주는 것 같았다.

그때 그 성당에서 기념으로 산 CD를 오늘 아침 들었다. 건전지로 돌아가는 조그만 ‘소리통’이라 그날의 장엄한 울림에 견줄 수는 없지만 음악이 주는 느낌은 느슨한 감성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주었다. 그리고 자동차로 멀고 지루한 길을 달릴 때는 이따금 야니의 역동적이면서도 감미로운 가락이 쌓인 피로를 씻어준다.

*

무엇을 읽을 것인가

글 • 변택주

앎이 바르면 행이 바르게 나온다. 하지만 스스로 안다고 외치면서도 바른 행이 나오지 않는 까닭은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몸으로 부딪쳐 겪은 앎, 몸으로 터득해 안 앎만이 참된 앎이다. 앎이 바르면 저절로 바른 삶이 우러나온다.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일은 책에서 얻은 짧은 지식만으로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에서 건져 올려 머리로 헤아리고 외운 것만으론 바른 앎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몸을 놀려 몸에 익혔을 때 비로소, 내가 두루 행할 수 있는 내 앎이 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 왜 도를 깨치고 바로 죽어도 좋다고 하지 않았을까. 첫째, 깨친 도를 직접 몸에 익혀야 그때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노래할 줄 안다’ ‘밭을 갈 줄 안다’ ‘자전거 탈 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전거 타는 법을 달달 외워도 자전거를 직접 타보지 않으면 탈줄 모른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자전거와 놀아보아야 비로소 자전거와 몸이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노닐 수 있다. 머리로만 헤아려 아는 건 온전한 앎이 아니다. 몸을 놀려 몸에

젖어들게끔 될 때 비로소 할 줄 알게 된다.

둘째, 깨침이 그저 내 깨침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깨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깨침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만 진정한 깨달음이 되기 때문이다. 나누지 않으면 그 깨침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아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깨침을 나눌 때 비로소 그 깨침이 빛을 발한다. 그래서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

법정 스님 말씀을 떠올려 보자.

“고귀한 성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책 속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한 날 그 사람이 남긴 찌꺼기에 지나지 않다는 말은 살아 있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보편 진리 세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열매를 맺기 어렵다.”

왕이 책을 읽을 때, 곁에서 끼어들어 그 글이 죽은 이 글이라면 이미 찌꺼기일 텐데, 죽은 글을 무엇 때문에 읽느냐고 시비를 건 수레바퀴를 깎는 목수 얘기다. 그는 네깃놈이 무엇을 아느냐고 화를 내며 그 까닭을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서슬이 시퍼런 왕 앞에서 당당하게 대꾸한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너무 깎으면 헐거워서 쉽게 빠져 버립니다. 또 덜 깎으면 조여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깎지도 덜 깎지도 않게 아주 정밀하게 손을 놀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퀴가 제대로 맞아 제가 바라는 대로 일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손으로 익혀 마음으로 짐작할 뿐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성인들도 자신들이 깨달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고스란히 전하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목수는 자기 일을 통해서 진리 세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나왔다.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이어가기 위해 책을 읽을 때, 먼저 책을 잘 살펴 마치 좋은 동무를 가려 만나듯이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자를 따라가지 말고, 동무를 만나는 마음으로 그 속에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실체와 만나야 한다. 그들이 흘린 땀 냄새를 맡아야 한다. 그 스승들과 함께 어우러져 땀을 흘리고 흠을 뒤집으며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들과 함께 놀아야 한다.

아울러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진리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이 하는 일, 몸소 겪는 일이 지닌 가치를 반드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만 한다.

변택주· 아둔하고 미욱한 탓에 좀 슬기로워지라고 법정 스님께서 지광(智光)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다. 1998년부터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고 길상사 법회 진행을 맡았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책을 읽고 뜻을 나누고자,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되면 ‘꼬마평화도서관’을 열기 위해 나라 곳곳을 다니고 있다.

이면의 모습

글 • 고 현

나는 법정 스님을 지근거리에서 30여 년을 지켜보았다. 처음 인연이 닿았을 때는 폭언과 함께 쫓겨나기도 했고, 헤어지기 힘들어할 때는 서산 스님의 일화로 깨우쳐 주기도 하셨다. 때로는 칼날 같은 할이 날아오고, 때로는 조크나 농칭 때문에 웃음을 참느라 입을 막기도 했다.

스님에게는 ‘얼음선사’라는 별명이 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란 뜻일 게다.

당신의 상식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부드럽게 거절할 때도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상하좌우 관계없이 딱 잘라 매몰차게 거절하는 얼음장 같은 모습도 여러 번 보았다. 그때 거절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선 얼마든지 나올 법한 별명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스님의 책에서도 법회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이면(裏面)에 대해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또 스님이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으로 부는 ‘하숙생’을 들어본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스님은 서양 명상음악의 거장 바흐의 리듬에서 영화 음악이나 오케스트라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셨다. 불일암에 계실 때 혼자 흥이 나시면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 왔건만 세상사 쓸쓸하더라……’

남도 창 '사철가를 구성지게 부르시기도 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음악 하나만 놓고 봐도 1965년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알고자 하셨다. 산야에 오래 묻혀 사시다 보니 뼈꾸기부터 머슴새에 이르기까지, 철새인지 텃새인지 뿐만 아니라 집새, 산새, 물새의 습성까지 꿰고 계셨다. 식물 하나를 보시더라도 들꽃과 야생화를 포함, 한해살이 풀인지 다년생 나무인지, 열매와 잎과 뿌리의 약리작용까지 섭렵하시어 가히 조류학자나 식물학자 수준이셨다.

우리는 흔히 바느질 솜씨 좋은 옷을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한다. 더러 스님들이 팔꿈치, 엉덩이, 무릎 등 빨리 닳고 헤어진 부분을 유사한 천으로 덧대어 꿰매 입으시는데 스님도 예외는 아니시다. 다만 그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정교한지 보통의 시각으로 흔적을 알 수 없을 만큼 완벽하시어, 그 어디에서도 공상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팔이 들어 있는 아이스캔디를 좋아하시어 '아00', '비00'의 40년 고객이셨고, '빠빠용' 영화를 세 번씩 보시는 영화팬이시기도 했다. 또, 다른 선승들도 그러하셨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을 매우 좋아하시어 당신 만나고 떠날 때면 문밖까지 극진히 배웅하고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계시곤 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승려의 표본으로만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먹물옷을 입은 입에서는 '출가 사문이 잡스럽게 무슨?' 빈정거림으로 자신의 짧음을 노출한 삭발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기 질서, 자기 관리가 너무도 철저한 그래서 바늘 하나 꽃을

데 없는 꼬장꼬장한 고집쟁이 영감쯤으로 오해받는 경우마저 생기곤 했다.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능청을 부리거나 조크를 하실 때 그 수준은 가히 달인의 경지였다.

어느 날 밤,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런 행사엔 언제나 법인 이사이며 재능 기부 사회자인 아나운서 향적^{香寂} 이계진 선배의 몫이었다. ‘맑고 향기롭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가 부득이 법정 스님에게 무대에 올라와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

선발 기준이 학업 성적보다는 청소년 가장, 결혼가족, 장애우 등 생활이 어려운 환경을 기준 삼아 선발했음을 스님 자신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위한 위로의 손길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그때 스님께서서는 무대가 아닌 객석 맨 앞줄에 본부 임원들과 나란히 앉아 계셨다. 사회자가 스님을 호명하자 엄청난 기립박수와 환호 속에서 일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스님은 무대에 오르기 위해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혼잣말로 구시렁거리셨는데 나란히 앉아 있던 범우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폭소가 터져버렸다.

“에이 참! 늙은 중, 밤무대까지 뛰어야 하나.”

고현·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又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탕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 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광주·전남모임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 매뉴얼 북 연구를 통하여 모든 디자인 작업을 체계화 하였다.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네

글 • 작자 미상

사람마다 한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활자로 된 게 아니다.
펼쳐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항상 환한 빛을 발하고 있다.



• 발췌 : 「말과 침묵」 활짝 갠 하늘을

책을 보낸다

글 • 법 정(法 頂)

어제 아침 목포 고등학생들이 이곳 해인사에 왔었다.
목포에서들은 이곳에 발걸음이 드문데, 모처럼들 왔더군.
그중에 영일과 수남이도 섞여 있어 반가웠다.
시간 여유도 없고 해서 할 말도 채 하질 못했다.

책을 좀 보냈다. 〈인도철학사〉, 〈시지프스의 신화〉, 〈까뮈의 사상과 문학〉,
〈샤르트르의 사상과 문학〉 또 〈마하트마 간디〉, 〈문학 원론〉.

이 가운데서 뒤의 두 권은 네가 보고 앞의 네 권은 광순 형한테 내가
보내 드리는 연유를 얘기하고 부쳐 드려라.

영일 군의 행장이 무거울까 봐서 더 못 보냈다.

일전에 네 글도 잘 받아 보았다.

어제는 마침 내가 안내 차례가 되어서 다행하였다.

지금 이곳 가야산은 밤이면 다시 두견새의 울음이 있고 신록이 멋지다.
관람객들의 왕래가 빈번하다.

‘마하트마 간디’는 내가 존경하는 인격 가운데 하나다.

너에게도 많은 공감이 있을 줄 안다.

유달영 씨의 <인생 노트>는 읽었느냐? 읽은 뒤의 느낌은?

안녕히

1959년 5월 1일 해인사 사문(沙門)

법정 합장

* 발췌 :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임은섬



법정 스님 저서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해를 맞아,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화 보존하는 의미로 전자책으로 작업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 입적 후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책을 구하고자 중고서점을 찾거나, 본회 사무국에 도서 판매 및 재출간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아 곤혹스럽기도 했습니다.

2010년 3월 17일, 법정 스님 유언 발표 당시 “스님의 글을 읽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언제든지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와 더불어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존 관리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서적은 <무소유>,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를 비롯하여 샘터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총 13권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저서를 읽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후원회원(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은 현재후원중인 회원은 뜻함)이 전자책을 보시려면,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재등록하시면, 사무국에서 확인하여 중복으로 후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 전자책 보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훈탁한 세상에 밝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책은 가려서 읽어야 한다

글 • 김옥림

**시시한 책은 속물들과 시시덕거리는 것 같아서 이내 밀쳐낸다.
내 귀중한 시간과 기운을 부질없는 일에 소모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결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법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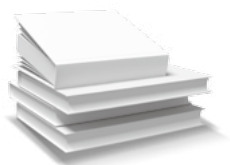
음식을 가려 먹고 잠을 가려 자듯, 책 또한 가려 읽어야 한다. 책은 단순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배워야 하는 까닭이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듯, 책 또한 아무 책이나 읽으면 생각에 탈이 날 수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의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요즘 우리 독서시장을 보면 깊이 있는 울림을 주는 책보다는 자기 위안을 삼는 가볍고 소소한 책들이 주로 판매된다고 한다. 물론 이런 부류의 책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중에는 제법 읽을 만한 책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땐 독서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경각심을 주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부류의 책은 글의 양이 적거나 그림이 섞여 있는 책들이 많다. 잠시 재밌거리로 읽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마음의 양식을 주는 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책은 읽고 지나치면 의미가 없다. 책을 통해 배움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 책은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배움을 얻어야 책 인 것이다.



김옥림· 시와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20년 넘게 YWCA, 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여성회관 등 각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한편, 어린이 글쓰기교실인 '초우서원'을 창립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시와 동화 등 글쓰기 지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2020년 제 1회 '맑고 향기롭게' 대학 장학생 선정 및 온라인 수여식 진행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회 장학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 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장학금에서 등록금 지원만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 그리고 타 장학사업 선발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찾아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생은 총 180명의 신청자 가운데 19개교 49명을 선발하였고, 신청 학생 가족의 소득 수준(소득 분위) 및 성장과정, 역량, 학업 성실도 등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 대학 장학생 공모 결과 - 총 180명 서류 접수(5월 29일 우편 소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37명	차상위, 1분위	65명	2분위	18명
3분위	21명	4~6분위	29명	7~8분위	8명
지부 추천(2분위) : 2명				총180명	

■ 2020년 맑고 향기롭게 대학 장학생 선정자 : 총 19개교 49명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가톨릭대학교	2	경희대학교	5	고려대학교	5
광운대학교	3	국민대학교	6	동국대학교	3
서경대학교	1	서울대학교	2	서울시립대학교	2
서울여자대학교	2	성균관대학교	1	성신여자대학교	6
송실대학교	1	연세대학교	1	한국외국어대학교	4
한양대학교	2	인제대학교	1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1
(경남)창신대학교	1				

* 남녀별 : 남학생 20명, 여학생 29명

* 학년별 : 2학년 12명, 3학년 12명, 4학년 25명

장학증서 수여식은 코로나19 재해로 인해 사회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운 관계로, 6월 26일(금)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여식 당일에 장학생 중 근교에 거주하는 모범 남, 여 대학생 각 1명만 본회 사무국으로 초청하여, 대표로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차담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장학생들이 지식보다는 지혜를 넓히고,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공헌활동 참여를 유도해 인연을 맺어나갈 계획입니다.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맑고 향기로운 가게(불교문화용품 판매점) 운영 및 맑고 향기롭게 문화 상품 개발의 필요성

길상사내 불교문화용품 판매점인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회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취지를 더욱더 알리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운동을 우리의 자산인 '심불과 로고'가 실린 불교문화상품으로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다양한 재능 기부와 참여를 바라며,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매주 목, 금요일)와, 김치(3월-10월 둘째 목요일)를 지원하고,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방지를 위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중입니다. 요양원과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 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중입니다. 센터와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7일(화), 21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봉사자와 상의하여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 숲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바구니 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은 2층을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3층 서로배움터에서 참선 및 작은 임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제록 이후 금강경수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회원, 봉사자분들, 그 외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신 모든 도반님들을 환영합니다.

* 시간: 매주 화, 금 오후2시

* 교재: 무비스님의 작은 임제록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 기도	7월 4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백중 아미타기도 및 하안거 결제	7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7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7월 11일	오후 8:30~	극락전
지장재일	7월 8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7월 1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7월 2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청년회법회, 중·고등법회, 어린이법회, 새신도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7월 4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도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인터넷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백중 아미타기도 입재 및 하안거 결제

- 장소 : 극락전

- 초재 : 7월 22일 / 선망조상을 위한 천도재
- 2재 : 7월 29일 / 낙태영가를 위한 천도재
- 3재 : 8월 5일
- 4재 : 8월 12일
- 5재 : 8월 19일 / 반려동물을 위한 조축
- 6재 : 8월 26일
- 막재 : 9월 2일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영가 지못 접수 받습니다. 종무소에서 접수 후, 영단 옆 마련된 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영가 지못은 막재 때 소전 해드립니다.

불기 2564(2020)년 가사불사모연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기 2564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경자년 하안거 백중기도 기간에 승보공양의 하나인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사불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 재가자가 출가자에게 올리는 음식(飮食), 의복(衣服), 와구(臥具), 의약(醫藥)의 네가지 공양(四事供養) 가운데 하나인 의복을 지어드린 데에서 유래합니다.

가사란, 출가수행자가 입는 세 종류의 의복(三衣, 요즈음의 1.속옷 2.평상복 3.외출복 겸 예식복에 해당합니다)을 총칭하는 말로서 부처님 당시에 버려진 천의 조각들을 기우고 괴색으로 물들임으로써 사치와 향락을 버렸다는 의미에서 분소의(糞掃衣)라 하였으며, 다른 이름으로 염의(染衣), 인욕의(忍辱衣), 법의(法衣), 복전의(福田衣), 공덕의(功德衣), 무구의(無垢衣), 해탈복, 자비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서는 <현우경> 제 13권에서 “염의(染衣)를 착용하는 사람은 일체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며, 불도(佛道)를 성취하게 된다.”라고 설하셨고, <대승본생십지관경>에서는 출가한 보살이 법의(法衣)를 지님으로써 얻게 되는 10가지 수승한 이익을 낱알이 설하고 있으며, 기타 수많은 불교경론에서도 가사가 지니는 무량한 공덕과 위덕에 대하여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스님들께 의(衣) 공양을 올리는 인연은 신성하고 지중한 공덕입니다.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 중에 으뜸인 가사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이 신심과 원력으로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지으시기를 발원합니다.

- 🌸 회 향 : 불기 2564(2020)년 9월 2일(백중)기도 회향 시
- 🌸 동참금 : 십시일반(5만 원 이상 가사불사 축원을 해 드립니다)
- 🌸 문의 및 접수 : 길상사 등록소 02)3672-5945



법정 스님 수행처 사진 공모전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 문화 사업으로
법정 스님의 대표적인 수행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

- 법정 스님 고향 마을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
- 경남 통영 미륵산 미래사
- 경남 하동 지리산 쟁계사
- 경남 양산 영축산 통도사
-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
- 서울 강남 수도산 봉은사
- 전남 순천 조계산 송광사 & 불일암
- 서울 삼각산 길상사

中에서
기도 정진하는 모습,
지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모습,
고즈넉한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
사찰 전통 건축양식 및
자연 경관상 아름다운 모습 등
널리 알릴 수 있는
주제에 적합한 작품 사진

- 접수기간 : 2020년 8월 1일 ~ 8월 20일 까지
- 접수방법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
 -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접수기간에 맞춰 이메일로 접수
 - clean94@hanmail.net / 1인 3작품 이내
- 출품규격
 - 디지털 사진(JPG 이미지파일)으로 최소 1,000만 화소 이상/3MB 이상
 - 필름 사진은 스캔 후 응모 가능)
-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 9월 중 (차후 공지)
- 시상 내용

종류	인원	상금액
대상	1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3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6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선	20	상품권 5만원, 법정스님 사진첩

※ 시상인원은 응모작품수 및 작품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